

젊어진 축구협, 한국축구 '구태 청산' 의미있는 시작

사커 토크

축구협회 개혁, 무엇이 달라졌나

기술발전위원장에게 이임생 전 테니스감독 선임 사무총장제 신설·대표팀감독선임위 마련도 국제대회 지원할 대표팀 전담팀 구성도 예고

위기에 내몰린 대한축구협회가 전면 개혁에 나섰다. 정몽규(55) 회장이 약속한 '인적쇄신'의 1차 결과가 8일 드러났다.

축구협회가 전면에 내세운 카드는 홍명보(48)와 박지성(36)이다. 국가대표팀 사령탑으로

2014브라질월드컵을 이끈 홍 전 감독은 축구협회 신입 전무이사를, 박지성은 유소년 축구 총괄 임원인 유소년총괄부장을 맡는다.

이는 그동안 재야에 머물던 젊고 새로운 피를 수혈함으로써 축구협회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특히 박지성의 합류로 축구협회는 김호곤 전 기술위원장 겸 부회장이 최근 일본축구협회(JFA)를 방문하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유소년축구타운 설립에 한층 힘을 받게 됐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행정 책임자인 홍 신입 전무이사를 보좌하기 위해 사무총장직을 신설했다. 전한진(47) 전 축구협회 국제팀장이 맡는다. 전 팀장은 대표적인 '국제 통'으로 축구협회의 주요 국제 업무를 담당해왔다.

기술위원회도 변화에 동참한다. 이제 더 이상 주요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으로 골머리를 앓을 필요가 없다. 기술발전위원회와 더불어 국가대표 감독선임위원회가 새로 구성된다. 딱히 특별할 것은 없다. 아주 오래 전부터 제기된 내용이 다.

그동안 축구계에서는 "기술위원회가 중장기적인 축구발전의 큰 그림을 그려나가야 한다. 대표팀 감독의 임기와 기술위원장이 임기를 함께 하는 현재의 구조에서는 뚜렷한 비전을 그려나갈 수 없다. 좋은 정책을 만들더라도 시행과정에서 책임자가 바뀌면 다시 원점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줄곧 터져 나왔다.

김 전 위원장의 후임으로 이임생(46) 전 테니스(중국) 감독이 선임됐다. 앞으로 기술발전위원

회는 철저히 정채수팀과 기술연구 등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하면 된다. 다만 사실상 임시기구와 다름없는 국가대표 감독선임위원회 위원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축구협회는 특정 인사에게 부회장을 맡기면서 이 역할까지 맡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가대표 감독선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기보다 축구협회 부회장과 및 일부 이사회들이 머리를 맞대고 선임하는 편이 낫다는 '공동 책임론'을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축구협회도 내부적으로 다양한 방향을 놓고 고민 중이다.

부회장단도 대폭 바뀌었다. 기존 조병득 부회장과 더불어 축구협회 역점사업인 학원·클럽 리

그를 관장하고 제도개선을 담당할 부회장으로 최영일(51) 전 동아대 감독이 임명됐다. 대회위원장으로는 조석제(52) 전 수원FC 감독이 선임됐다. 주요 실·팀장급 인사 및 전면적인 조직개편도 9일 발표하는 축구협회는 이와 별개로 주요 대표팀 전담지원팀 구성도 논의하고 있다. 단 순히 내년 6월 개최될 2018러시아월드컵 준비뿐만 아니라 향후 월드컵~아시안컵~올림픽~아시안게임(여자부 포함) 등 주기적으로 열릴 주요 국제대회에서 최상의 지원을 하기 위해 새로운 부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협회 관계자는 "자연스러운 세대교체와 전문성 강화를 통해 보다 역동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인사개편의 취지를 설명했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기성용(가운데)이 8일 수원월드컵경기장 보조구장에서 열린 대표팀 훈련에서 차두리 코치(왼쪽)가 손흥민(오른쪽)에게 내준 패스를 중도에 차단하고 있다

뉴스

▶다시甦친 홍명보·박지성...1면에서 이어집니다

파란만장한 축구인생을 살면서도 홍명보가 결코 놓지 않은 게 있다. 2003년 시작한 자선축구대회다. 소아암환자와 소년소녀가장을 돕기 위한 자선행사인데, 자신이 받은 사랑을 팬들에게 돌려주려는 마음이 강했다.

그동안 20억원이 넘는 기금을 조성해 어려운 이웃에 전달했다.

전무이사가 된 날 그는 "언제나 내게 일이 주어질 때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전면적인 혁신에 대한 (정몽규) 회장의 의지가 강한 걸 확인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의연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2006년 월드컵을 앞두고 코치가 되었을 때, 2014년 월드컵 복전에 감독이 되었을 때, 모두 힘든 상황에서 결정을 내렸다는 그는 "지금 두렵지도 않고, 어려운 상황을 피할 생각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야 행정가의 꿈을 이루게 됐다고 하자 "12년이라는 세월을 돌아왔지만 후회는 없다. 행정이라는 게 현장을 지원하는 곳이다. 그동안 현장에서 어렵고 힘든 점을 잘 파악했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도전을 멈추지 않는 박지성

한국축구 최고 스타였던 박지성은 2014년 은퇴를 하면서 지도자는 자신의 길이 아니라고 깔끔하게 정리한 뒤 "제2의 인생은 축구 행정가"라고 못 박았다. 최근 일본 아후자팬과 인터뷰에서 "행정가의 길을 선택한 이유는 한국과 아시아축구발전에 도움을 주고 싶다는 꿈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 유럽에서 많은 걸 배우고 경험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의 실천의지는 강했다.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으면서 꿈을 키워 나갔다. 은퇴 이후 영국에 머물던

서 어학공부를 했고, 올해 7월에는 FIFA 마스터 코스 과정을 마쳤다. 박지성은 세계적인 선수 출신답게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그게 박지성의 위상이다.

올 여름 국제축구평의회(IFAB) 자문위원을 맡은 게 눈에 띈다. 한국인으로서 IFAB 자문위원에 선정된 것은 박지성이 처음이다. IFAB는 축구규칙과 규정을 결정하는 협의체다. 박지성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IFAB 자문위원으로서 세계 각지의 축구인들을 만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축구행정가의 길을 걷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엠베서더이자 아시아축구연맹(AFC) 사회공헌분과위원이 된 것도 박지성 이기에 가능했다. 이런 다양한 경험은 행정가가 되기 위한 훌륭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

행정 중에서도 그의 관심은 유소년에 쏠려 있었다.

박지성은 현재 자신이 설립한 JS파운데이션의 이사장이다. JS파운데이션을 설립한 건 유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였다. 매년 개최하는 국제유소년축구대회에 유스시스템이 발달한 축구 선진국을 초청했고, 이들과의 경기를 통해 국내 유망주들에게 경험을 선사했다. 올해 8월에도 강원도 평창에서 U-12 유소년대회를 열었다. "미래 한국 축구의 근간이 되는 청소년축구발전에 기여 하겠다"는 생각을 그는 늘 강조했다.

이런 박지성의 의지는 유소년총괄부장 발탁배경과 무관치 않다. 유소년총괄부장은 국내 유소년축구와 관련한 정책을 세우고 추진해나가는 자리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선진축구의 유스 시스템을 이식시켜 한국축구의 백년을 설계해야 한다. 그 길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결코 멈출 수 없는 이유는 제2, 제3의 박지성을 발굴하는 게 한국축구가 살 길이기 때문이다.

●...이날 훈련은 20분만 일반에 공개한 뒤 나머지 연습은 비공개로 진행했다. 대부분의 선수들은 오전에 모여 세트피스 상황에 맞춘 훈련을 소화했다. 코칭스태프 역시 오전과 오후를 거쳐 4시간 가량 회의를 진행했다.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측면요원 합류, 지지않는 게임의 열쇠

현장 리포트

신태용(47) 감독이 이끄는 축구국가대표팀의 10월 유럽원정은 쓸쓸하기만 했다. 내년 6월 월드컵 개최국 러시아에 이어 모로코와 격돌해 2-4, 1-3 완패를 당했다. 이란~우즈베키스탄으로 이어진 2018러시아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마지막 2연전, 무득점·무승과 맞물리면서 비난의 목소리는 컸다.

이제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는 상황.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린 대표팀은 10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치열한 남미대륙의 경쟁을 뚫고 월드컵 본선에 직행할 콜롬비아와 격돌한다. 14일 울산문수경기장으로 장소를 옮겨 세르비아와 11월 2번째 A매치를 갖기에 앞서 열리는 매치 업이다.

6일부터 경기도 수원에 훈련캠프를 차린 태극전사들도 이번 시리즈의 의미를 잘 알고 있다. 최대 핵심은 '지지 않는 게임'이다. 신 감독은 수원 캠프에서의 첫날 훈련을 지휘하며 "실질 없는 경기를



최철순

김진수

하겠다"고 선언했다.

단단한 뒷문 구축이 객관적인 전력상 월드컵 본선진출 32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에 속한 대표팀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1차 과제다. 지난달 유럽 원정이 더욱 안타까웠던 것은 풀 전력을 구성할 수 없었던 탓이 크다.

당시는 어쩔 수 없었다. 대표팀은 월드컵 최종예선 통과를 위해 국내파를 조기에 소집했다. 정규리그 스케줄을 조정해줬던 K리그의 회생에 보답하기 위해 신 감독은 10월 원정길에 철저히 해외파만

10일 콜롬비아·14일 세르비아전 최철순·김진수 "철저히 준비 할 것"

동행시켰다.

그래서 여러 포지션이 흔들렸으나 특히 큰 타격이 생긴 곳은 측면 수비진이었다. 사이드를 뚫고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전문 풀백들의 부재로 대표팀 코칭스태프는 어쩔 수 없이 '변형 쓰리 백'을 꺼내놓아만 했다.

물론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소속팀에서 안정감 넘치는 플레이를 해온 전문 후방 날개들이 출전채비를 마쳤다. 특히 올 시즌 K리그 클래식(1부리그)을 천하통일하며 통산 5번째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은 전북현대의 '믿고 쓰는' 사이드 풀백이 묵묵히 땀을 흘리고 있어 든든하다.

투지의 아이콘으로 불리며 오른쪽을 책임질 최철순(30)은 "승리 마인드가 중요하다. 기술적인 발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속팀에서의 활약에 비해 A매치에서의 역할은 부족하다는 혹평을 받아온 왼쪽 풀백 김진수(25) 역시 "연구하면서 철저히 준비하겠다. 과감한 몸싸움, 적극적인 압박, 협력 플레이로 대비하겠다"고 했다. 수비 1 남정현 기자

그란데·미냐노 코치, 신심 사로잡은 이유

신태용(47) 대표팀 감독에게는 최근 든든한 2명의 지원자가 생겼다.

스페인출신의 토니 그란데(70), 하비에르 미냐노(50) 코치를 영입했다. 이들은 4일 입국해 6일부터 시작된 축구국가대표팀의 소집훈련에서 합류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스페인 대표팀, 레알마드리드(스페인), 베스티아스(터키)를 거친 경험 많은 지도자다. 좋은 조력자가 생긴 것은 반길 일이지만, 신 감독에게는 부담이 따른다는 시선도 적지 않다.

그러나 정작 신 감독은 이 부분에 전혀 걱정이 없다. 두 코치 스스로가 자신의 역할이 뭘지 확실하게 알고 있어서다. 이번 코치선임을 위해 대한축구협회는 러시아에서 여러 코치들을 후보군에 올려놓고 미팅을 했다.

신 감독은 지난날 7일 러시아와의 평가전을 치



그란데 코치

미냐노 코치

른 뒤 그날 경기내용을 놓고 코치 영입대상자들의 브리핑을 들었다. 이 가운데 토니 그란데, 하비에르 미냐노 코치의 브리핑이 신 감독의 마음을 가장 사로잡았다.

협회관계자는 "다양한 후보가 브리핑을 했는데 신 감독님은 두 사람의 브리핑을 가장 마음에 들어 했다. 우리 팀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었다

브리핑서 대표팀 문제 정확히 짚어 상대 분석·회복 훈련 노하우도 '굿'

고 하더라"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두 코치는 명문구단, 세계최고 수준의 대표팀에서 지도자 생활을 한 만큼 방대한 자료와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그란데 코치는 7일 오전 미팅 때 선수들에게 스페인대표팀이 콜롬비아를 만났을 때의 준비과정 이 담긴 영상을 보여주며 설명을 했다. 콜롬비아의 간판 공격수 하메스 로드리게스(바이에른 뮌헨)도 집중분석 해줬다. 미냐노 코치는 선수들의 회복훈련도 개인 특성에 맞춰 실시하는 등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썼다. 신 감독은 "러시아에서 미팅했을 때 두 분이 꼭 필요하다고 싶어 협회에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앞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미팅을 하면서 팀에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